정인원 전북대 대학원생, 한국곤충학회 우수상

전북대학교 곤충계통진화연구실의 농축산식품융합학과 소속 정인원 석사과정생(지도교수 김소라)이 최근 열린 '2023년 한국곤충학회?한국응용곤충학회 공동 춘계학술발표회' 구두 발표부문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전했다.

정인원 학생은 전 세계적 해충 중 하나인 열매꼭지나방(Stathmopoda auriferella)을 연구 대상으로 한 'Application of AI in microlepidopteran pest' 주제의 연구 과정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AI 기술인 'YOLO 알고리즘'을 활용해 실시간으로 해충을 탐지하고, 생물의 분류군을 정확하게 선택하기 위한 필수 과정인 생물종 동정에 기여할 수 있는 연구 성과에 대해 설명했다.

이 연구는 미래 농업분야에서 개발이 필요한 신기술 중 하나로, 우리 농업분야에 직면한 위해요소 제거에 대한 사회문제 해결방안의 역할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종 동정 뿐 아니라 분류 및 생태 모니터링 분야에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관련 사례와 연구가 지속적으로 개발 및 추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인원 대학원생은 "격려와 도움을 준 김소라 지도교수님 및 연구실 부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이번 성과를 시작으로 앞으로도 더 나은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청주에서 열린 이번 학회는 우리나라 곤충학을 이끌어가는 대표적 학회인 한국곤충학회와 한국응용곤충학회가 20여년 만에 공동 개최한 춘계 학술발표회다.

/장은성 기자

"전북 발전 위해 소중히 사용"

용인특례시 전북도민회, 한마음으로 전북도 고향사랑기부 응원

전북도는 지난 11일 기흥ICT밸리 컨벤션에서 열린 용인특례시 전북도민회(회장 고석곤) 발족식에서 회원들과 함께 내 고향을 응원하는 고향사랑기부제 퍼포먼스를 펼쳤다고 밝혔다.

이날은 용인지역에 터전을 잡고 살아가는 출향 전북인들이 전북도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고향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도민회를 결성하는 자리였다. 김종훈 전북도 경제부지사, 용인특례시 도민회 및 재경도민회를 비롯한 용인시 연고 국회의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고향사랑기부 퍼포먼스는 출향 도민에게 고향사랑기부제를 알리고,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과 전라북도 고향사랑기부제를 응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획됐다.

이에 행사 마지막인 도민회 비전 선포식에 앞서 김종훈 경제부지사를 포함한 도민회 임원 등 주요 내빈 10명이 함께 전라북도 고향사랑기부제 성공적인 정착과 고향 발전을 응원했다.

더불어 전북도민회 초대 회장인 고석곤 회장이 전북도에 기부 최고 액인 500만 원을 기부한 것에 대한 감사의 의미를 담아 고석곤 회장에게는 전북사랑도민증을, 용인특례시 전북도민회에는 감사패를 수여했다.

고석곤 도민회장은 "내 고향 전북의 발전을 위해 작은 힘이라도 보탤 수 있어서 기쁘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고향을 위해 열심히 돕겠다"고 말했다.

김종훈 경제부지사는 "고향 전북도와 지역의 밝은 미래를 위해 용인특례시 전북도민회가 창립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타지에서 고향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힘써주시는 고석곤 도민회장과 회원들에게 감사 드린다"며,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은 기부금은 전라북도 발전을 위해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첫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고향에 기부하고 지자체는 이를 모아서 주민복리에 사용하는 제도다.

/김재훈 기자

진안 상전면, 용담호 주변 국토대청결 운동 추진

진안군 상전면(면장 이옥순)은 12일 상전면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안기두)와 공동으로 용담호 주변 국토대청결운동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번 국토대청결운동은 상전면 21개 모든 기관·사회단체 회원들과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성사됐다. 주민 100여 명이 함께 참석해 직접 용담호 주변을 청소, 폐비닐, 농약빈병, 담배꽁초 등 약 3톤의 방치된 쓰레기를 수거했다.

안기두 위원장은 "이번에 추진된 주민 주도의 국토대청결운동을 계기로 앞으로도 용담호 상수원 보호와 자율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옥순 면장은 "상전면 각 기관·사회단체 간 자율적인 소통과 협력으로 환경 정화 활동을 추진하게 된 것에 대해 모든 기관·사회단체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기자

김제시 금구면, 시흥시 신현동 초청 친선대회 개최

김제시 금구면(면장 두일균)은 지난 12일부터 13일 이틀 동안 경기도 시흥시 신현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민간위원장 박인숙) 및 공직자 20여명을 초청하여 김제시 일원에서 친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경기도 시흥시 소재 해성산업을 경영하면서 한결같은 나눔 실천으로 지역사회의 귀감이 되고 있는 금구면 출향인 오승석 대표와 각별한 인연으로 열리게 되었으며 상호 협력·정보교환 등을 통해 양 지역의 우애를 돈독히 다졌다.

특히 첫날인 12일에는 김제 시티투어버스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망해사, 새만금 등 주요 관광지를 편리하게 둘러본 후 금구 편백나무 숲길을 돌아보며 김제의 아름다운 매력을 한껏 즐기는 시간을 가져 더 큰 의미를 더했다.

시흥시 관계자는 "지난달 16일에는 시흥시에서 개최된 불우이웃 돕기 행사에 김제시 공무원들과 함께 지역 농특산물 판촉 행사를 가졌다"면서 "이번 친선대회를 통해 김제시의 친절하고 따뜻한 환대에 다시 한번 깊은 우정을 느꼈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에 두일균 금구면장은 "김제까지 찾아와주신 신현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과 직원분들께 감사하다"면서 "앞으로도 양 자치단체의 특성을 반영한 교류사업과 함께 주민화합과 친목을 다지는 민간 행사 마련 등 지역 상생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행사의 숨은 주역인 오승석 대표는 김제에 대한 남다른 애정으로 고향사랑기부제 최고액 500만원 및 답례품 기탁, 불우이웃돕기 물품 기부, 금구면 어르신 효 잔치 후원 등 꾸준하게 고향 사랑을 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제=곽노태기자

전북교총, 제42회 스승의 날 기념 교육공로자 표창

전라북도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전북교총, 회장 이기종)는 제42회 스승의 날을 맞아 12일 전북교총회관 3층 회의실에서 교육공로자 표창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기종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투철한 사명감과 헌신으로 30여 년을 학교현장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지도한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교육은 상호 배려, 존중, 사랑을 키워드로 학교 현실에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실천 다짐이 있어야 하며, 그 가치는 교육자만의 덕목이 아니라 모든 교육 가족, 사회, 국가가 학교를 바라보는 시선이어야 하고, 교육을 대하는 마음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교육자가 먼저 학생들의 꿈과 희망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사랑으로 응원해 주자"고 당부했다.

이번 제42회 스승의 날을 맞아 특별공로상을 받는 진용대 순창쌍치초 교감은 전북교총의 정책자문위원으로 교원의 지위와 향상을 위한 노력과 각종 심사위원, 전북청소년 미래교육 창의나래 추진으로 표창을 받고, 최종철 선유도초중교감은 학교 현장에서 교권 침해를 당한 교원들을 방문 위로하고 교권보호와 중등 인사정책 및 중등교육과정, 학업성적관리 등 전문가 활동에 이바지한 공로로 특별을 수상했다.

또한 한국교총 독지상을 수상한 김순주 유한회사 해피앤자인 대표는 난치병 학생 돕기운동 및 장학금 기부, 학교폭력 지역 예방활동 등을 펼쳐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한편 교육주간을 맞아 전북교총은 교과 및 생활지도, 교원단체활동 등 공적이 뚜렷한 교육자에 대한 특별공로상(2명), 투철한 사명감으로 32년 이상 열정을 기울여 온 교육자에 대한 교육공로상(85명), 헌신적인 노력으로 30년 이상 전북교육 발전에 기여해온 교육자에 대한 교육공로상(79명), 어려운 환경에 처한 학생들에게 장학금 기부하고 각종 봉사활동을 펼쳐 교육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사회인사에 대한 독지상(1명) 등 총 167명에 대해 표창장과 부상을 수여했다.

/장은성 기자

임실교육지원청, 청소년과학탐구대회 예선 개최

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남궁세창)은 지난 11일 청소년과학탐구대회 군예선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임실교육지원청에서 진행된 이번 대회의 종목은 융합과학, 과학토론이며, 각 초중학교에서 선발된 26명의 학생들이 참가했다.

먼저 융합과학은 수수깡, 마분지, 목공풀 등 주최측이 공통적으로 제공한 재료를 갖고 달 자원 추출 로봇을 만드는 것이 문제로서 이 문제는 대회 시작 때에 공개됐다. 학생들은 2인 1팀을 이뤄 평소 쌓은 융합과학 지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장은성 기자

남원시, 시민소통의원회 2분기 분과회의 진행

남원시가 지난 12일 함파우소리체험관 다목적실에서 시민과의 소통강화를 위한 제1기 시민소통위원회의 2분기 분과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2분기 분과회의는 시정홍보사항으로, 춘향 빛을 그리다~! 역대 화려한 춘향제가 치러질 제93회 남원춘향제 및 고향사랑기부제 홍보와 1분기 분과회의 제안사항 16건에 대한 처리사항 등 검토결과 공유, 지역소멸대응을 위한 기금사업에 대한 의견수렴, 요천 국가 통합하천의 공간구성 및 활용방안과 컨텐츠 발굴 등에 관한 정책제안을 통해 남원을 찾는 사람들이 매력을 느끼는 요천 개발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한편 이은주 시민소통실장은 "분야별 시정에 대한 시민의 견 수렴, 시정현안(아젠다) 홍보 등 양방향 소통 및 시민중심의 정책의제 발굴부터 정책집행 및 평가까지 연계하는 가교역할을 할수 있는 시민소통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다각적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 경로당 공용와이파이 · IPTV 구축

남원시가 어르신들의 스마트한 노년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7월까지 관내 경로당 494개소에 공용와이파이와 IPTV를 구축해 통신료 절감 효과는 물론 시정 홍보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시에 따르면 이번 경로당 와이파이 구축사업은 당초 오는 26년까지 연차별 구축 계획이었지만, 디지털 소외계층인 어르신들의 정보격차를 해소하고자 조기 추진됐으며,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난 4일 기간통신사업자인 SK브로드밴드를 사업자로 선정했다.

남원시는 이번 경로당 와이파이 구축 효과가 어르신들께 크게 유용할 것을 고려해 향후 스마트빌리지 보급 공모, 스마트 경로당 구축사업 공모에도 도전해 IOT 헬스케어를 통한 건강 DB 구축 등과 더불어 디지털 인프라를 활용한 행정서비스를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 대산면, 관내 농촌일손 돕기 진행

남원시 대산면(면장 류창)은 지난 12일, 홍보전산과와 노인장애인과 직원들을 포함한 25여명과 도움이 필요한 관내 농가에서 일손 돕기를 진행했다.

이번 봉사활동은 본격적인 영농기를 맞아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농촌인력난으로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힘을 모아 모판 나르기, 모판 깔기 등을 실시했다.

농가주 장규연씨는 "바쁜시기에 일손을 구하기 어려워서 걱정이 많았는데 도움을 준 덕분에 한시름 놓을 수 있었다"고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한편 류창 면장은 "숙련된 일손은 아니지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어 보람을 느꼈으며,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농가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무주 설천면주민자치위, 등하굣길 안전지킴이 나서

무주군 설천면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박종용) 회원들이 가정의 달을 맞아 관내 유치원생들과 초등학교 1~2학년 학생 45명에게 가방안전덮개를 선물해 눈길을 끌고 있다.

가방안전덮개는 식별이 쉬운 색깔과 구성으로 디자인된 일종의 안전장치로 비가 오거나 어두운 상태에서도 운전자 눈에 잘 띄어 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또 어린이 보호구역과 주택가 등 이면도로에서의 차량 제한속도(30km/h) 준수를 유도하는 수단도 될 것으로 보여 기대를 모으고 있다.

무주군 설천면 주민자치위원회 박종용 위원장은 "가방안전덮개가 아이들의 안전한 등·하교 도우미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라며 "이를 계기로 지역사회가 함께 교통안전 수칙을 지키는데 솔선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전주대, 구이면 일대 농촌 일손 돕기 봉사활동

전주대학교(총장 박진배)는 12일 구이면 일대 원예 농가에서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전북농협(본부장 김영일)과 연계해 지역사회 농촌 활성화를 위해 2022학년도 2학기에 이어 올해 1학기에도 사회봉사 교과목으로 농촌 봉사활동을 편성했다.

지난 4월 14일 김제 금구면 수확 농산물 세척 및 포장 작업을 시작으로 6월까지 약 30명의 학생이 총 6주에 걸쳐 구이, 이서, 익산 일원에서 원예 포트 작업, 육묘 상차, 양파 정식 등 일손을 도울 예정이다.

김문택 선교봉사처장은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우리 지역 농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어 다행이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논의를 통해 지역사회와 상생하며 나아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비전대, 성인친화형 AI융합지도자 양성교육

전주비전대학교 평생교육원(원장 김은성)은 최근 전주시와 연계한 'The 스마트한 미래를 위한 AI융합교육지도사 양성과정'을 진행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교육과정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미래형 혁신인재 직업능력 교육 프로그램으로 초·중학교 코딩 교육 의무화에 따른 코딩 교육 전문가 인력 양성 자격증 취득 과정으로, 수료생 전원이 AI융합교육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유영숙 교육생은 "프로그래밍 언어부터 로봇코딩까지 다양하게 체험할 수 있어 좋았다"며, "배운 내용을 열심히 공부해서 코딩강사로 활동하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은성 원장은 "이번 교육과정을 통해 지역사회 수요 중심의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한 전주비전대의 역할을 제시하고, 지역민과 함께하는, 지역민이 원하는, 지역민을 위한 평생성인학습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은성기자